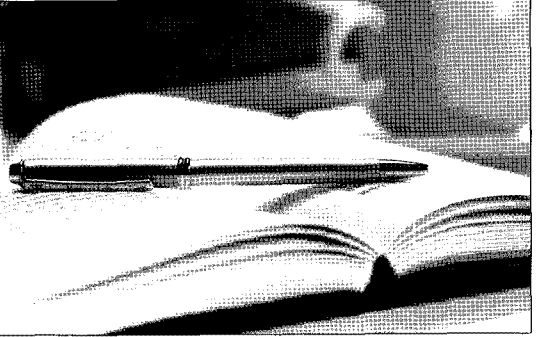


종계 생산성 저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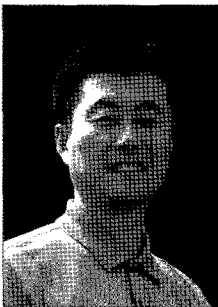
사람이 살다보면 가끔씩 결과의 열매가 부실해졌을 경우 이것이 씨앗 때문인지, 아니면 밭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인지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가 종종 있음을 경험한다. 원인을 모르면 물론 처방도 애매모호하여 다방면의 경험담들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다.

우리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전국 곳곳의 종계장에서 생산성 저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듣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난해부터 육계병아리 가격과 닭값은 수요 공급의 원칙을 떠나서 물량 확보에 치중하느라 비정상적일 만큼 과거의 전례와 다르게 고공행진을 하며,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매년 되풀이되던 닭고기의 소비변동이나 겨울철 생산성 저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이라고 보고 있다. 종란을 납품하는 종계 농가들의 피해는 불어나고, 종란 수급자와 공급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계약관계는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켜 다음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별도의 요구조건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문제의 발단은 종계의 생산성 저하 때문에 병아리가 부족하여 가격이 고가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생산성 저하의 원인은 무엇인가? 생물인 종계의 생산성이란 여러 가지의 원인에서 찾아야 하지만, 필자는 2가지에서 원인을 찾고 싶다. 즉, 사양관리와 질병문제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우선 내 농장에서부터 원인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의 육용종계는 육계의 증체와 사료요구율 개선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개량을 해나가고 있다. 육용종계도 육계의 특성을 그대로 잠재하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원중

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산란기간 동안 더 높은 수준의 체중조절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30주령 이전 암탉과 수탉의 완전한 분리급이가 되지 않으면 수탉의 과비가 쉽게 일어나 40주령 이후에는 과비로 인한 암탉의 산란율과 수탉으로 인한 수정률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많은 종계업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닭의 육종문제니, 사료 또는 질병의 문제 등 닭의 탓으로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육종회사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차피 외국에서 개량된 계종을 도입하여 사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육종회사에서 권장하는 최적의 사양과 환경을 닭에게 제공하는 것만이 우리의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질병에 대한 문제이다. 가축에게서는 항상 과거에 문제화되지 않았던 질병도 고밀도 사육으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음을 보아왔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봉입체성간염(IBH), 마이코플라즈마시노비아(MS), 조류 뉴모바이러스(APV), 레오바이러스(REO) 같은 소모성 질병들은 차단방역으로 감염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외국의 육종회사들로부터 원종계를 수입하고 있으며, GGP(원종계의 모계)의 백신프로그램이 상기에 열거한 질병들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이러한

질병들로부터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백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아시아의 몇몇 국가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 상기의 질병에 대한 백신이 허용되어 백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종계업자들이 이러한 질병에 대하여 백신허용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간에 요청하고 있으나, 매번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언제나 가능할지 기다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더 합리적으로 접근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방역당국은 농민들이 생업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결하여 도움을 주는 역할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백신의 수입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도 모르는 바 아니나 많은 전국의 종계장들이 생산성 저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종란이 부족하여 병아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로 말미암아 닭값이 또 상승하여 닭고기를 원재료로 사업하는 사람들 또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므로 하루 빨리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검토를 거쳐 값싸고 질 좋은 닭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씨앗을 생산하는 원천인 종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

우리나라는 많은 종계업자들이 이러한 질병에 대하여 백신
허용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간에 요청하고 있으나, 매번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언제
나 가능할지 기다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의 몫
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더 합리적으로 접근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가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그렇지 않으면 원인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워 자꾸만 목소리 큰 사람들이 배를 산으로 몰고 가는 현상이 초래되어 해결은커녕 불신만 증대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종계장들은 건축한 지 오래되어 계사가 피로에 쌓여 오염이 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종계장을 청정지역으로 옮기기에는 농장의 재정적인 면이 너무 취약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계열화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실적이 나아진

다고 알려지고 있으므로 오염된 종계사를 새로 건축하거나,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해결방안이 만들어지도록 이제는 종계장과 계열사 간에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농장과 계열사들은 내 농장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접근을 하고, 정부와 연구기관은 농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의 연구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으로써 농가와 정부의 상호 협력이 있어야 만이 종계의 생산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